부산 민주항쟁 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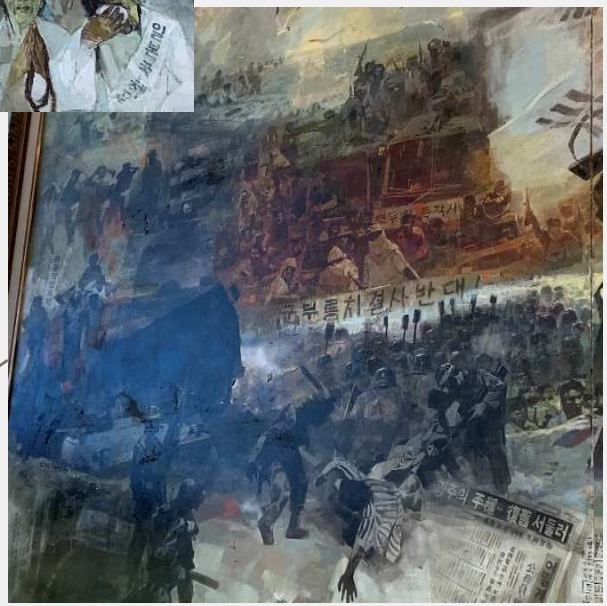
2022년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다락방> vol.2

2022년 8월 25일

민주항쟁 기념관 가는 길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민주화운동의 발자취



부산 민주항쟁기념관은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그간의 민주화운동 중 가장 격렬하게 운동이 벌어졌던 영남권의 운동의 흔적을 잘 담고 있습니다. 고향이 부산이고 부산 지역의 민주항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한 번도 가본 적 이 없었던 기념관을 탐방해보게 되었습니다.

부산 민주항쟁 기념관의 <늘펼쳐보임방>으로 향하는 입구에는 근대 이전부터 현대까지의 민주화운동과 잔혹한 역사의 현장들을 그림의 중첩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은 무겁지 않게 들어갔던 발걸음이 이 그림을 보고 경건해진 마음으로 바뀌어 기념관 탐방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항쟁의 현장들

기념관 내부에 들어가자마자 보였던 문구는 벽에 크게 적혀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맨 위에 있는 말입니다. 이 문구를 크게 접하니 민주항쟁이 벌어졌던 참혹함이 역설적으로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민주 열사들이 민주항쟁 과정에서 수감되었던 감옥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는데, 일반 제소자들과 완벽히 분리하여 24시간동안 철저히 감시하고 고립과 고독이 극대화된 '감옥 안의 감옥'이었다는 점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부산 지역 민주화 운동의 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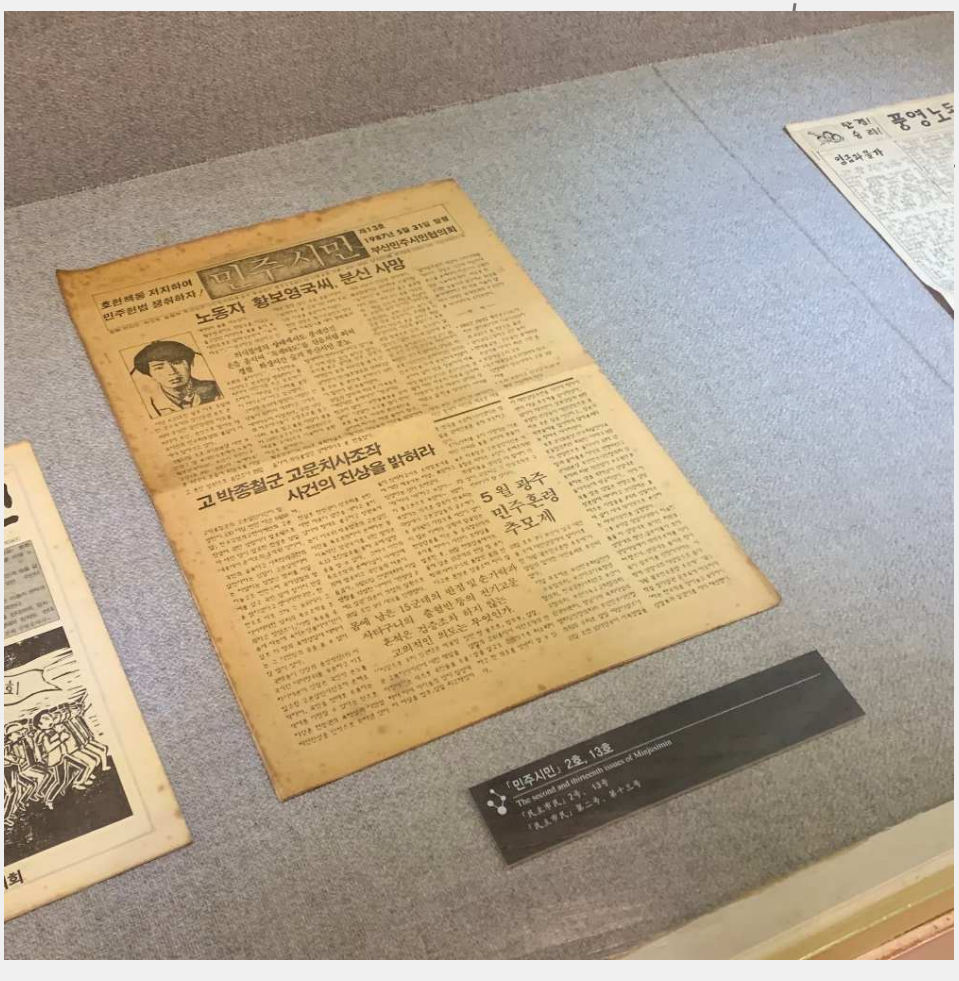
전국적인 민주화운동 중에서도 부산 지역의 민주화운동은 더욱 특별했던 것처럼 느껴져 뿌듯했습니다. 1979년 부마민주항쟁 이후에도 부산에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세력들은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중항쟁을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고 계승해왔다는 것입니다.

6월민주항쟁으로 열렸던 승리의 공간에서 부산의 민주화운동은 다양하고 넓게 확대되었고, 이런 점들이 부산의 문화운동이나 여러 시민사회운동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 후 민주화운동은 통일운동으로 나아가 남북정상회담까지 그 정신을 이어갔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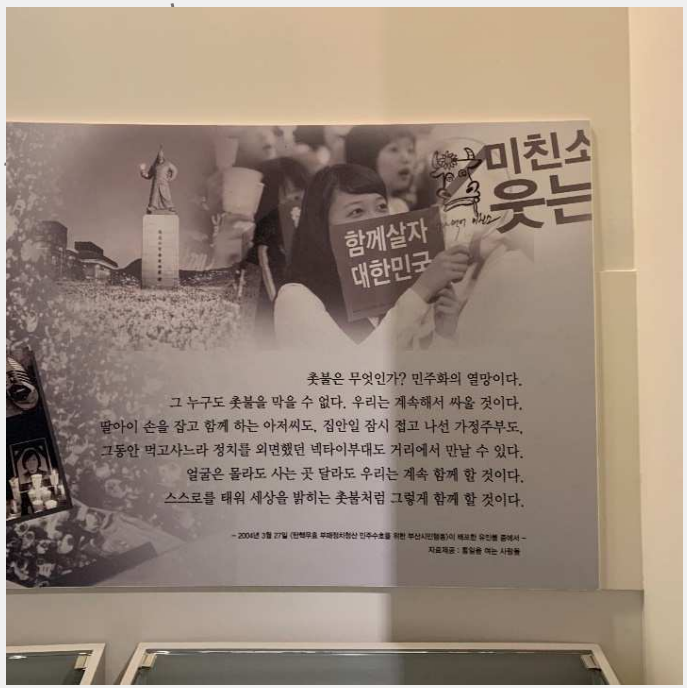
잊고 있었던 과거가 되살아나다

학생일 때, 학교에서 혹은 대외행사로 기념관이나 박물관을 가서 적나라한 자료들과 실제로 보관된 물건들을 보면서 감탄해하고 역사교사나 역사학자를 꿈꾸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기념관에 잘 가보지 않게 되었고, 이 기회를 통해 오랜만에 역사자료가 모여진 기념관에 와 보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발 뻗고 살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기념관이 지어지고 건재해서 우리가 살아온 경험과 역사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현재를 위한 과거의 돌아봄



민주항쟁 기념관을 왜 한 번도 안 가봤을까 생각해보면 현재의 문제도 만연한데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돌이켜보는 것은 급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 보면서, 학생인권조례나 촛불집회와 같은 현재의 민주주의 문제까지 자세하게 나와있는 걸 보면서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모두 과거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현재와 앞날의 더 나은 세상을 갈망하며 그 정신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위해 지나간 날을 톺아보고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사실 살아가는 것처럼 역사도, 우리가 해왔던 승리의 경험을 잘 기억해야만이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가지고 잊지 않고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여러가지 민주주의 문제를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 민주항쟁의 발자취,
내가 살아온 고향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